

법왕사 27회 백고좌 회향기념 칠석날밤 마가스님 초청 힐링 콘서트

법 문



마가스님
자비명상 대표

- ◆ 일 시 | 2014년 8월 2일(음. 7월 7일) 밤 7시
- ◆ 장 소 | 법왕사 야외무대 ◆ 문 의 | 053)766-3747
- 증명 : 학송 심경스님(중심문도회 회주)

공 연



보현스님
승려가수



상정스님
대구 출가운절 주지



우담바라 합창단



해오름 사물단

사 회



박수경
대구불교방송 아나운서

제27회 백고좌 법회 회향 혜능스님 보살계 불명 수계법회



8월 20일
혜능스님 전 해인사 율원장



제28회 백고좌대설법회



● 입재

9월 13일
연담스님
제주 천제사 한주



● 회향

12월 21일
지현스님
순천 송광사 율원장



대한불교
조 계 종 법 왕 사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51길 104
T. (053)766-3747 F. (053)767-6095
www.bubwangsa.or.kr



한결 같은 마음

해오름요양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51길 96
T. (053)766-5767 F. (053)766-5095
www.silver79.kr

우리도 부처님 같이 마음을 맑게 세상을 향기롭게

2014. 8 | Vol. 243호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



대한불교
조 계 종 법 왕 사



해오름요양원

한결 같은 마음

백중(우란분절) 영가천도 49재

갑오년 백중(우란분절) 맞이 영가천도 49재가 지난 6월 23일 입재하여 음력 7월 보름인 8월 10일에 회향합니다.

우란분절은 부처님의 제자인 목련존자가 지옥도에 떨어진 어머니를 천도하기 위해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올리고 부처님과 스님들을 공양하여 어머니를 구했다는 유래가 있는 불교의 중요한 명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영가천도에 참여하는 불자들은 기도 기간 중 선망부모와 조상 및 수자령가들을 천도, 극락왕생을 기원하며 사경책을 한 권씩 정성들여 베껴 회향일에 불사르는 의식을 올리게 됩니다.

불자들께서는 모두 수회동참하시어 선망부모의 왕생극락을 기원하시고 크나큰功德 쌓으시기 바랍니다.

기 도 육재 8월 3일(음. 7월 8일)
막재 8월 10일(음. 7월 15일)
* 재일은 매주 일요일

준비물 속옷 - 런닝, 팬티, 양말, 기타
겉옷, 신발(짚신) - 사중에 준비
세면도구 - 비누, 치약, 칫솔, 수건, 대야
공양미 - 3되3홑 또는 15,000원
수자령 - 분유, 배냇 저고리, 과자, 유아복, 장난감 등

문의 법왕사 766-3747, 9088

- ※ 동참금은 영가 1위당 1만원입니다.
- ※ 매 재마다 공양물을 올리실 분은 종무소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 영혼결혼식 접수받습니다.

C.o.n.t.e.n.t.s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

우리도 부처님 같이
마음을 맑게 세상을 향기롭게



Vol. 243호



- 04 깨침의 향기
지극정성으로 사는 삶
그 자체가 바로 수행이다 · 원공당 정무 대종사
- 08 비술산방
참된 삶은 깨달음에서 시작한다 · 실상 주지스님
- 10 불교상징의 세계
범종은 몇 번 울리는가? · 조명래
- 16 법왕사 신도광장
삶을 누빈 한 땀 한 땀 · 승혜스님
- 20 기획특집
불교의 노동관(2) · 마성
- 24 법회이야기
백중과 영가천도의 공덕
- 26 법왕사소식
- 28 법왕사게시판
- 30 해오름소식
- 31 해오름게시판

월간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 | 등록일 2012년 9월 14일 | 등록번호 수성 라 00017 | 발행처 대한불교 조계종 법왕사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51길 104 www.bubwangsa.or.kr | 발행일 불기 2558(서기 2014)년 8월 01일 발행 | 통권 243호 | 종무소 T. (053)766-3747 · 9088 F. (053)767-6095 | 발행 겸 편집인 실상스님(권오범) | 인쇄인 강영도 | 편집위원장 원인스님 | 편집위원 모도, 영일, 성해, 정명, 상철, 자윤, 승혜, 자행, 강선옥, 대해궁, 반야화 | 기획·제작·디자인 다산미디어 (053)424-3322

법왕지 월간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매달 불제자 여러분에게 다가갑니다. 더욱 알차고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의 따뜻한 이야기가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지극정성으로 사는 삶 그 자체가 바로 수행이다

원공당 정무 대종사



지금 어떤 상태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깨달음을 얻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어떻게
행동하겠다고 자신의
소원을 밝히고 실천하는
것이 바로 행원입니다.

여래가 깨달으신 해탈의 세계는 일반 범부 중생들이 이해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세계입니다. 이 불가사의한 해탈의 세계에 대한 설명이 화엄경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이처럼 불가사의한 해탈의 세계를 구현해 가려는 보살의 광대한 실천 즉, 보현행원(普賢行願)이 그 두 번째 주제입니다. 행원(行願)이란 말 그대로 해석한다면 ‘행동에 대한 소원’입니다. 지금 어떤 상태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깨달음을 얻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하겠다고 자신의 소원을 밝히고 실천하는 것이 바로 행원입니다. 선재동자도 보현보살을 만남으로써 궁극적인 이상인 깨달음의 서원을 구체적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화엄경 보현행원품에는 다음과 같은 열 가지 보현행원이 설해져 있습니다.

부처님을 공경하고, 부처님의 공덕을 칭송하겠습니다. 모든 부처님께 지성껏 공양을 드리고, 잘못된 일은 즉각 뉘우치며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남이 조금이라도 잘한 것이 있으면 같이 기뻐하고, 만나는 이마다 부처님 법문 듣기를 청하며, 이 세상 모든 부처님들이 더 오래 우리 주변에 머무시어 더 많은 중생을 제도하시기를 청하겠습니다. 부처님을 본받아 열심히 공부하기를 맹세하며, 중생들을 부처님 대하듯 섬기고, 행여나 생긴 이익이 있으면 모든 이들에게 나눠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열 가지 보현행원은 다른 수행법과 달리 언제 어느 때나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참선이나

염불, 독경(讀經), 진언(眞言) 등은 모두 특정한 장소, 특정한 시간이 있어야 하기가 쉬우나 보현행원은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할 수 있는 수행법입니다. 예컨대 밥 먹을 때도 “부처님, 이 공양을 들고 열심히 수행하겠습니다” 하고 원을 발할 수도 있고, 직장에서 만나는 주위 사람들에게 공경과 칭찬을 나눌 수도 있고, 오며가며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부처님처럼 섬기고 매사에 감사 드리는 가운데 항상 부처님을 생각하고 보리심을 발하면 되니 굳이 수행처와 수행시간을 따로 구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행원은 하는 것만큼 즉각적인 공덕을 가져옵니다. 즉, 한 번 하면 한 번 하는 것만큼, 열 번 하면 열 번 하는 것만큼의 공덕이 즉각 생겨나는 것입니다. 행원을 행하면 할수록 나 자신부터 항상 기쁨과 환희 속에서 살아가게 되고 부정적이던 생각과 행동이 긍정적으로 바뀌면서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널리 회향하는 공덕을 쌓게 됩니다. 내가 바뀌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뀌고 이로 인해 이 사회, 이 나라가 바뀌는 광대무변한 부처님의 가피는 모두 보현행원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보현행원은 다른 어떠한 수행법보다 좋은 것은 스승 없이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선의 경우에는 선지식(善知識)을

만나지 못하면 수행하기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것에 비하여 이 보현행원은 스승 없이도 혼자서 수행할 수 있고, 내가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를 언제 어느 때나 점검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로 인해 이익을 받는 이가 많아지고, 나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질수록 내가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것이며, 만일, 나로 인해 괴로워하고 나를 싫어하고 비난하는 분들이 많아진다면 내가 잘못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니 다른 사람은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보현행원은 우리 모두를 성불로 이끄는 수행법입니다. 참선이나 염불 등은 자기 중심의 수행법이어서 다른 사람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평생 참



일상생활 자체가
보현행원이고 수행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곧 부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고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고 이 세상이
밝아지는 길입니다.

선을 하고 염불을 해도 그것은 자기 참선이고 자기 염불일 뿐입니다. 그러나 보현행원은 열심히 수행을 하면 할수록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수행하는 공덕이 생겨나는 수행법입니다.

보현행원을 행할 때는 무유궁진(無有窮盡)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홍서원에서 세운 서원처럼 중생을 모두 제도할 때까지 행원을 행하겠다는 굳은 마음이 무유궁진한 마음입니다. 또한 무유피염(無有疲厭)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행원을 행할 때에는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더라도 피곤하고 힘든다는 생각을 내어서는 아니됩니다. 이처럼 불퇴전의 마음으로 보현행원을 행할 때만이 여래가 깨달으신 해탈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해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우는 모든 서원과 더불어, 공경과 찬탄 속에 이루어지는 일체의 행위들이 바로 보현행원입니다. 경전을 읽는 것도 보현행원입니다. 마음 속에 부처님을 그리며, 지극한 공경심으로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리는 것도 보현행원입니다. 깨침을 얻려고 참선을 하는 것도 보현행원이고 업장을 뉘우치고 밝은 빛을 찾기 위해 참회하는 것도 보현행원이고 하루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보현행원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도,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도 보현행원입니다.

이처럼 우리 불자들은 일상생활 자체가 보현행원이고 수행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곧 부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고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고 이 세상이 밝아지는 길입니다.

참된 삶은 깨달음에서 시작한다

실상스님 / 법왕사 주지



게 한량 없고 끝없는 중생을 제도하되 실제로는 한 중생도 제도를 받은 이가 없느니라. 무슨 까닭이겠는가? 수보리아, 만일 어떤 보살이 아상(我相), 인상(人相), 중생상(衆生相), 수자상(壽者相)이 있으면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니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먼저 깨달은 자는 다른 중생들을 깨우치기 위해 몸 바쳐야 하며 또 그런 공덕에 대해 아무런 상(相)을 갖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금강경(金剛經)의 첫머리에서 수보리(須菩提)가 부처님께 “아녹다라삼막삼보리심을 낸 자는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 받고 어디에 의지해야 됩니까?” 하고 묻자, 부처님께서 “일체 생명 가진 자를 구제(救濟)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자각(自覺)한 자, 즉 보살은 일체 중생을 자각시키는 데 몸 바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또 말씀하시길, “이렇

여기에서 우리는 깨달음은 올바른 실천을 위한 하나의 출발에 불과하다는 점을 알게 됩니다. 깨달음은 결코 종착역이 아니며 가장 바른 삶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 가장 잘못된 인식(認識)되고 있는 문제는 깨달음을 삶의 끝으로 보는 데에 있습니다. 깨달음을 창



조적(創造的) 삶의 출발이라고 한다면 깨닫기 이전의 삶은 종속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속적인 삶은 육신을 살찌우기 위한 것이지 진정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남이 장에 간다고 자기도 거름지게 되고 장에 따라가는 격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맹목적으로 따라다니는 삶을 중생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중생이란 말에는 종속되었다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고 밝지 못함의 무명(無名)이라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결국 깨달음이란, 바로 종속된 틀에서 벗어난다는 뜻으로 즉, 자유나 해탈(解脫)의 개념이며 또 밝지 못한 상태에서 벗어난 밝은 상태를 의미하는 개념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은 사람을 잠에서 깨어나게 하고 어둠을 밝게 하며 자유롭게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들이 느끼는 고통의 원인은 자신의 삶이 종속되어 있고 억압받고 있으며 부자유한 현실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수행의 근본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깨달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새로운 사회, 정토세계(淨土世界)를 건설할 주역은 누구인가? 바로 이 사회에서 가장 아픔을 많이 겪는 사람,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가 가장 강렬한 사람이

바로 그 주인공들일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힘의 원천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이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 드러나지 않게 갖추고 있는 역량(力量)이 가장 크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아픔이 없는 자는 아무리 머릿속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문제를 시급하게 극복해야 한다는 절실함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불교, 기독교, 천주교 그 어떤 종교도 대중의 고통 없이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대중의 참여 없이 어떻게 종교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 중생이 없는데 어떻게 부처가 있고 보살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점을 우리가 깊이 자각한다면 앞으로 자기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가 분명해지리라고 봅니다. 바로 위선적인 삶을 살지 않으려는, 바르게 살고자 하는 구도자적인 바람과 자세만 있다면, 부패된 사회 속에서도 우리의 몸과 마음이 그 혼탁한 기류 속에서 더 이상 방황하며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보살행이 될 것입니다.



성덕대왕신종(에밀레종)

범종은 몇 번 울리는가?

조명래 / 불국사 문화유산 해설사

새벽 예불과 저녁 예불을 올리기 전에 범종(梵鐘)을 몇 번씩 울리는가? 범종은 지옥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타종하는데 새벽에 28번을 치고 저녁에 33번을 친다.

우리 중생이 살고 있는 삼계(三界)는 육

계 6천(天), 색계 18천, 무색계 4천의 28천으로 되어있다. 새벽에 28번을 타종하는 것은 삼계의 28천을 수직으로 차례로 열어 중생의 간절한 기원이 도리천에 계신 부처님께 전달하는 것을 상징한다. 저녁에 33

번을 타종하는 것은 수직으로 열려있는 28천을 차례로 닫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수미산 정상에 수평으로 열려있는 도리천의 33개 성문을 닫는 것을 상징한다.

조선시대 성문을 열고 닫던 인정(人定)과 파루(罷漏), 그리고 근래의 제야의 종을 타종하는 것은 모두 불교의 범종에서 비롯되었다. 저녁에 성문을 닫는 것을 알리는 인정은 우주의 일월성신 28수(宿)에 고하기 위하여 28번 타종하고, 새벽에 성문을 여는 것을 알리는 파루는 제석천이 이끄는 하늘의 33천에 고하여 그날의 국민민안을 기원하기 위하여 33번 타종한다.

원래 제야의 종은 선달 그믐날 밤 사찰에서 108번 울렸는데 근래에는 보신각을 비롯한 전국의 주요 종각에서 파루의 전통을 이어받아 33번 타종하여 새해의 시작을 알린다.

범종의 구조

우리나라 범종은 학명(學名)으로 ‘한국종’이라 불릴 만큼 독자적인 양식을 지니고 있다. 신라 성덕왕 24년(725년)에 만들어져 국보 제36호로 지정된 상원사동종(上院寺銅鐘)과 혜공왕 7년(771년)에 만들어져 국보 제29호로 지정된 성덕대왕신종(聖德大王神鐘)으로 대표되는 신라종의 뛰어난 우수성은 세계적으로 널리 인정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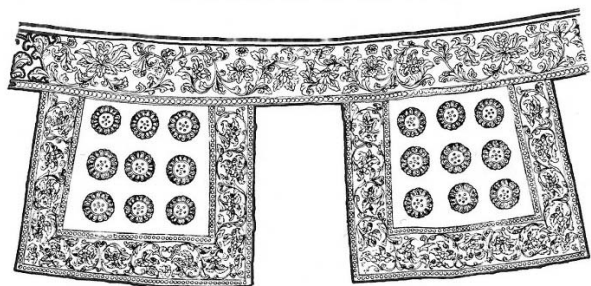
상원사동종

고 있다. 현재 국내의 있는 신라 범종은 모두 11구로 국내에 6구, 일본에 5구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되어 한국종의 원형인 상원사동종과 가장 뛰어난 성덕대왕신종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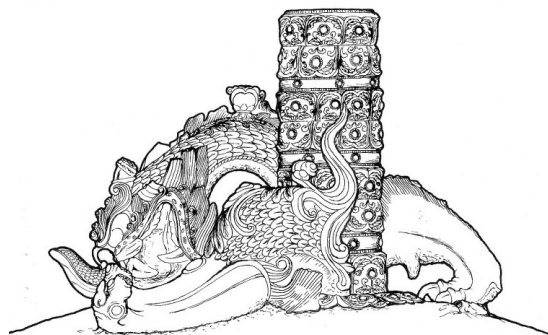
첫 번째 종의 형태는 김치 독을 얹어 놓은 것과 같은 형태를 하고 있어 매우 안정감을 주고 있으며, 바닥을 오목하게 파낸 ‘명동(鳴洞)’은 종소리가 땅을 타고 멀리 퍼질 수 있도록 하였다.

두 번째 종의 윗부분을 보면 용(龍)이 조



◀ 성덕대왕신종의 상대 및 유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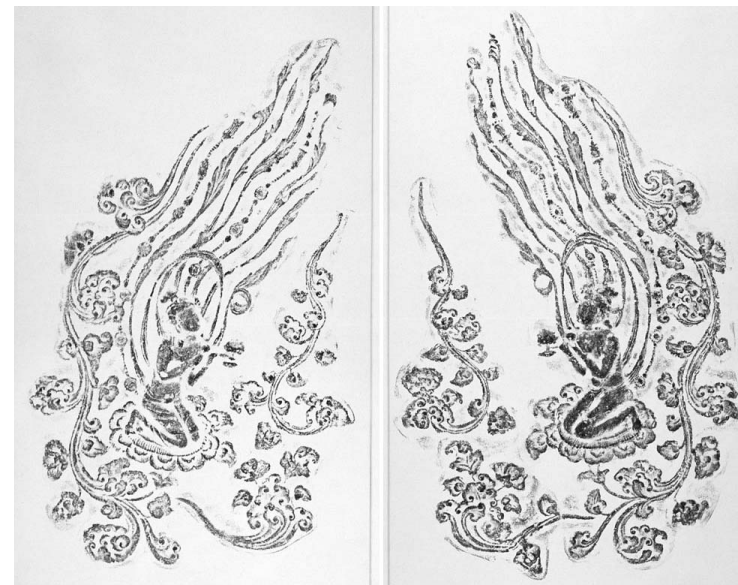
성덕대왕신종의 용뉴와 음관 ▶



각되어 있는데 이것을 포뢰라고 한다. 중국이나 일본의 범종 양식이 쌍두룡(雙頭龍) 입에 비해 한국의 경우는 한 마리의 용이 생동감 있는 자세로 허리를 구부리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은 종을 매달기 위한 고리의 역할을 겸하도록 조각한 것이다. 포뢰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고 하는 용인데 고래를 가장 무서워해서 고래를 만나기만 하면 겁에 질려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다고 한다. 그래서 범종 옆에는 항상 고래를 두고 있는데, 바로 종을 치는 당곡(통나무)이 고래를 상징한다. 사찰에 따라서는 이 당곡을 고래모양으로 조각해 놓은 곳도 있다.

세 번째 세계 어느 나라 종에도 없고 오직 우리나라의 종에만 있는 것으로 대나무모양을 하고 있는 이것을 용통(龍筒) 또는 음관(音管)이라고 한다. 이 음관은 '황룡사 구층탑', '진평왕의 옥대'와 더불어 신라 3대 보물의 하나인 '만파식적(萬波息笛)'의 신적(神笛)의 형태를 형상화한 것이다.

네 번째 성덕대왕신종의 소리의 비밀은 바로 '맥놀이 현상'이다. 다른 말로는 '공명현상'이라고도 한다. 성덕대왕신종은 사람의 호흡주기와 같은 2.7초의 주기를 가지고 있어 가장 듣기 좋은 소리를 내고 있다.



성덕대왕신종에 새겨져 있는 비천상

다섯 번째 종의 하단부 외경의 크기와 하단에서 천관까지 높이의 비율은 1:1.36으로 황금분할에 가깝고, 당좌의 높이와 종의 크기 역시 황금분할에 가깝기 때문에 종의 여운이 길어지는 것이다. 또한 성덕대왕신종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종들은 명동이라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정확하게 맥놀이 현상을 만들어 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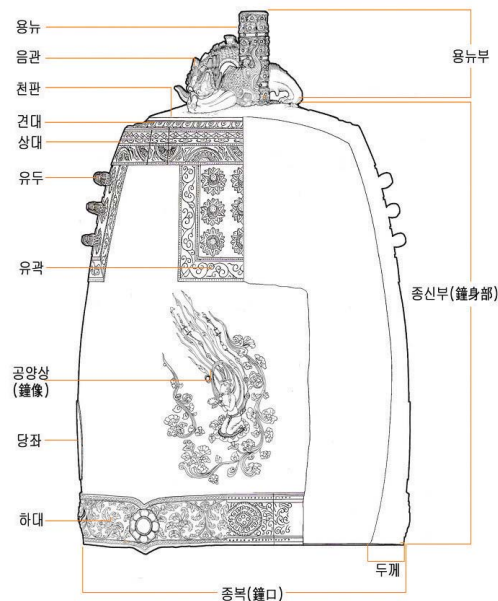
명동(鳴洞)은 그 공간 안쪽에 진동이 머물도록 하여 긴 여운을 만들 뿐만 아니라 위에서 내려온 진동을 반사하여 새로운 진동을 만들어내는 작용을 하고 있다. 이런 구조는 다른 나라의 어떤 종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우리나라 종만의 특징이자 우리

조상들의 뛰어난 기술과 과학수준을 말해주고 있다.

여섯 번째 성덕대왕신종의 특징 중의 또 하나는 바로 종의 내부구조가 비대칭으로 되어 있다. KAIST 김양한 교수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성덕대왕신종의 맥놀이 현상은 바로 신라인들의 치밀한 계산을 통해 만들어진 종 내부의 비대칭 구조가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한다. 이제까지는 이 금속덩어리는 신라인들의 주물제작기술이 뒤떨어져서 생긴 것이라 여겨왔는데 사실은 너무나도 정교한 설계의 산물임이 밝혀졌다.

일곱 번째 성덕대왕신종의 우수성은 납형법에서 드러난다. 신라의 전통적인 주물

범종의 명칭



제조법인 납형법은 밀랍으로 형태를 만들어 조각한 다음에 형틀을 만들고 밀랍을 녹여 빼낸 후에 그 사이에 주물을 녹여 붓는 방법이다. 현대 과학자들이 놀라는 것은 어떻게 이처럼 얇은 주물을 제작할 수 있었으며, 또한 27톤이나 되는 큰 종을 만들면서 내부에 기포가 하나도 발생하지 않도록 한 기술은 현재로서도 재현이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범종의 상징

범종 상하의 종견(鐘肩)과 종구(鐘口)에는 당초(唐草)무늬나 보상화(寶相華)무늬의 섬세한 무늬대(文樣帶)가 형성되어 있고, 종견의 무늬대에는 네 곳에 대칭으로 사각형의 유곽(乳廓)이 있으며, 유곽 안에는 9개씩 모두 36개의 종유(鍾乳)가 있다.

1) 사각형의 유곽은 사생(四生), 즉 중생이 태어나는 4가지 방법으로 태생(胎生), 난생(卵生), 습생(濕生), 화생(化生)을 말한다. 또한 사각형의 유곽 안에 있는 9개의 종유는 지옥 · 아귀 · 축생 · 아수라 · 인간 · 천상의 육도(六度)와 성문(聲聞) · 연각(緣覺) · 보살(菩薩)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바로 한국 종의 특징 중의 하나이다.

2) 종신(鐘身)에는 종을 치기 위한 당좌(撞座)와 비천상(飛天像)이 부조되어 있다. 당좌는 8장의 꽃잎이 달린 연꽃이 조각되

어 있는데 이것을 '팔엽원'이라 한다. 팔엽원은 불교의 교의와 신앙체계를 상징하는 것으로 연꽃 중앙은 비로자나불인 대일여래를, 주변의 8장의 꽃잎은 네 분의 부처님과 네 분의 보살님을 상징한다.

네 분의 부처님은 동방부처인 보당여래, 남방부처인 개루화왕여래, 서방부처인 무량수여래, 북방부처인 최고뇌음여래로 대원경지(大圓鏡智), 평등성지(平等性智), 묘관찰지(妙觀察智), 성소작지(成所作智)의 네 가지 지혜[四智]를 상징하며, 네 분의 보살님은 보현보살, 문수보살, 관음보살, 미륵보살을 말하며 중생을 불도로 인도하는 네 가지 방편인 보시(布施), 애어(愛語), 이행(利行), 동사(同事)의 사섭법을 상징한다.

팔엽원의 중앙의 대일여래는 불법의 진리인 법신불에 해당하고, 주변의 8장의 꽃잎은 법신불의 자비방편으로 나타난 네 부처와 네 보살로 종경록(宗鏡錄)에서는 사람의 심장에 비유하고 있다. 성덕대왕신종에 새겨진 명문에 보면 '신종(神鐘)을 걸어서 일승(一乘)의 원음(圓音)을 깨닫게 한다'고 하였으니 범종을 치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마음의 소리를 듣고자 함이었음을 알 수 있다.

3) 비천상(飛天像)은 주악비천상(奏樂飛天像)과 공양비천상(供養飛天像)으로 구분된다.

상원사동종에는 선녀가 허공에서 생화와 수공후를 연주하는 주악비천상이 새겨져 있다. 주악비천상은 실상사 범종, 한국 전쟁 때 파손된 신라 선림원종에도 새겨져 있다. 범종에 처음 새겨진 주악비천상은 대웅전이나 부도, 석등 등에도 널리 새겨지며, 그림으로 그려지고 있다. 화성 용주사와 완주 송광사 대웅전 천정에 조각된 목조비천상이 유명하며, 연꽃을 들고 있는 여주 신륵사 보제존자 석등의 비천상과 문경 봉암사 지증대사적조탑의 비천상, 경북 대학교 박물관에 있는 석조 부도의 비천상 등이 있으며, 그림으로는 영덕 장륙사 대웅전 천장의 비천상이 유명하다.

이와 달리 성덕대왕신종에는 보상화가 구름처럼 피어오르는 가운데 선녀가 연화좌에 무릎을 꿇고 연꽃을 공양하는 공양비천상(供養飛天像) 즉, 천인공양상(天人供養像)이 새겨져 있는데 이는 성덕대왕신종에 새겨진 공양비천상의 영향으로 고려 시대에는 보살비천상, 조선시대에는 여래비천상이 범종에 새겨진다.

따라서 범종을 타종하게 되면 비천상에서는 선녀들이 악기를 연주하는 천상의 소리가 함께 울려 퍼지는 것이다.

누빔 전문가 무량등 신도 삶을 누빈 한 땀 한 땀

승혜스님 / 법왕사



청와대 사랑채 손누비 전시회 시연회
국회의사당 전시회
LA 한인축제에 초청받아 스카프 기증
타키 초청 전시회
남미 국가 초청 전시회
대구박물관 유물복원 기증서
안동대학교 박물관 유물복원전
환경미술대전 대상(장옷 손누비)

부처님 당시, 고대 인도는 유명한 사상가들이 직접 활동을 하던 시기입니다. 존재의 실상에 대하여 62가지 견해를 설파한 그 당시 사상가들은 대부분 윤회를 거론했습니다. 주사위를 계속 던지면 숫자의 확률이 거의 비슷해지는 것처럼 혹은 왕으로 혹은 거지로 누구나 공평하게 윤회한다고 막칼리 고살라가 주장했습니다. 그 견해는 계급사회 인도의 천민계급을 위로했겠지만 부처님은 강력하게 비판하셨습니다. 어리석거나 지혜롭거나 떠돌고 무작정 윤회한 뒤에 괴로움을 끝낸다는 저 견해는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인과법〉과 〈연기법〉을 대안으로 제시하셨습니다. 윤회의 원래 단어는 'samsara'로 함께 흘러간다는 뜻입니다. 과연 전생은 존재할까요? 다음 생? 혹자는 죽어 봐야 알 것이라고 씩씩하게 냉소합니다.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부처님께서는 〈서로 기대는 성질〉, 즉 연성(緣性, paccayatā)을 밝히십니다. 이것과 저것은 서로 기대는 관계이며 홀로 존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제를 기대어 오늘의 태양이 떠올랐으며 그와 마찬가지로 이생에 기대어 다음 생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이렇게 윤회하는 과정에 우리들은 버릇을 익힙니다. 불교의 수행은 좋은 버릇을 더욱 증장시키고 나쁜 버릇은 끊게 만듭니다. 노력하

고 노력한 자신만의 뚜렷한 특기는 그 일에 몰두하는 힘을 키웁니다. 마치 빙상에서 김연아 선수가 운동 삼매에 들듯이 누빔 전문가 무량등 신도님은 '출토복식'이라는 분야에 집중하여 자신의 몫을 펼칩니다. 무량등 신도님을 인터뷰하며 새겨 본 것은 인생은 제각각 숙제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 숙제를 성실하게 치러낸 사람은 홀가분하다는 것을.



저는 할머니와 어머니 곁에서 바느질을 배웠습니다. 할머니께서 기도를 하시려고 절에 가셨는데 마침 스님께서 바느질을 하시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스님들께서 직접 옷을 지어 입으셨다고 합니다. 염색방법을 스님께 배워 할머니는 손수 만든 승복을 정성껏 보시하고 공덕을 쌓으셨지요. 누비 보살이라는 별명을 얻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스님께 전수받았던 염색기법을 가업으로 이어주셨습니다. 주로 먹물과 솜으로 염색을 합니다. 우리 집 거사님도 염색공장을 열어 승복원단을 취급했고 친정어머니 바느질은 솜씨가 뛰어납니다. 어느새 바느질을 한 지 35년이 넘었습니다.

누빔은 손누비와 미싱 누비로 나뉘는데 저는 손누비를 합니다. 손누비는 숨이 살아서 공기를 품습니다. 그래서 따뜻해요. 평



장히 가뻐합니다. 촉감도 미싱 누비와 다릅니다. 1cm 안에 바늘이 6~7땀 드나들 정도로 촘촘하게 누비는 정교한 작업을 하면서 광명진언을 외웁니다. 절에 다녀와 108배도 올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심신이 편안한 상태에서는 바느질도 수월한데 간혹 청정한 마음을 놓치면 바느질이 어렵습니다. 좌정하여 불교방승을 틀어놓고 바느질을 하는데 저는 결과부좌가 편안하게 됩니다.

삼베는 속에 애기 기저귀 감을 넣고 이중으로 누비는데 그렇게 하면 삼베의 까칠함이 몸에 닿지 않아 좋아요. 종일 바느질을 하면서 등이 따갑고 잠을 못 잘 지경이 되지만 옛 것을 보존하여 현대인들에게 소개하는 보람과 사명감을 가집니다.

스님들 장례풍습은 화장을 하기에 승복은 잘 보존된 것을 찾기 어렵습니다. 이 사진을 보십시오. 할머니께서 돌아가시는 바람에 찾아주지 못한 주인을 모르는 승복을 제가 소장한 것입니다. 깊고 또 기워서 누더기가 된 옛 승복이지만 이렇게 정교한 누빔이잖아요?

어느 교수님께서 권유하여 '출토복식'이라는 이름도 낯선 분야에 발을 디뎠습니다. 고분에서 출토된 옛 선조들 의상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입니다. 원단을 염색하여 바느질까지 공정과정을 제가 다 합니다. 그야말로

로 원형대로 복구하는 것이지요. 복원한 의상은 박물관에 전시용으로 사용합니다. 출토복식은 승복과 바느질 기법이 비슷합니다.

출토복식은 1980년도 이후부터 발굴이 되는데 한꺼번에 몇 십 점이 나옵니다. 도시가 확장되면서 근교 부지의 묘를 이장할 때 유물이 나오는데 아마 권세를 누리던 대갓집의 양반 분묘일 것입니다. 유물은 누비가 많습니다. 유골에 속옷을 겹겹이 대략 스무 벌씩 덧입히고 마지막에 장옷을 입혔어요. 색깔과 땀수를 보면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온몸에 전율이 느껴지는데 소름 끼칠 정도지요. 땅속에서 긴 세월을 보낸 그 옷에 선조들의 지혜가 묻어납니다. 바느질 공구도 모자랐을 것이고 조명도 시원찮았을 그런 시대에 어떻게 그렇게 섬세하고 정교한 바느질이 가능했는지 놀랍습니다.

바느질이라는 작업이 쉽지 않습니다. 주위에서는 왜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하나면서 재봉틀로 수월하게 박으면 되지 않느냐고 하지만 저는 바느질하는 시간이 행복합니다. 어렵고 힘들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야말로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이는데 요즘은 출토복식에 철릭이라는 누비작업을 합니다. 철릭은 이중 누빔인데 단국대학교

에서 의뢰한 14세기 복식입니다. 심혈을 기울여 재현하도록 노력을 합니다. 그 작업에 몰두하여 절에 자주 오지 못했어요.

법왕사와 인연은 깊습니다. 천막법당시 절부터 법왕사를 다녔는데 시어머님도 법왕사 신도입니다. 행사 때 법왕사를 찾아와서 기도합니다. 작년에는 삼천배를 했습니다. 하루 종일 절을 하고 온몸에 통증이 와서 잠들기 어려웠지요. 그런데 잠결이었는데 누군가 죽비로 어깨를 탁 쳐주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뒤에 신기하게 몸이 가볍게 되었어요.

출토복식기록을 후배나 후손들이 잘 알아보게끔 문서화합니다. 대학의 교수님들 이론과 병행하면서 실제 기술적 일은 제가 합니다. 출토복식 전문가는 몇 안 됩니다. 오랜 세월 땅에 묻혔던 출토복식에서 곱광이 났새마져 느껴지질 않을 정도로 재미나고 제가 꼭 할 일로 사명감을 가집니다. 이 일은 당장 실적이 나지 않지만 어떻게 하면 잘 보존할 것인지에 대한 골똥한 생각만 합니다.



불교의 노동관(2)

마성 / 동국대학교 겸임교수

(2) 노동의 사회의 의미

인간의 노동은 개별적·독립적으로 고립 분산되어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사회생활 가운데서 여러 개체적 노동과 유기적인 관련을 갖고 이루어진다. 특히 현대사회는 고도로 분업화된 사회로서 어떤 사람도 자신의 생활에 필요한 작은 물건 하나라도 자신의 노동에 의하여 직접 생산할 수 없는 상황이다.¹⁾

인간의 노동은 항상 분업과 협업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노동 자체가 이미 사회성을 띠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혼자서 일하는 것보다 여럿이 협동해서 할 때 그 일의 성과는 훨씬 커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역사적으로도 분업과 협업의 발전은 사회적 생산력의 발전과 궤를

같이하고 있는 것이다.²⁾

노동은 단순히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함이 아니다. 자신의 노동은 사회의 이익에 이바지하게 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노동의 사회성을 망각한 채 노동을 통해 개인적인 이익만 추구해서는 안 된다.

붓다는 『양구따라-니까야』에서 네 가지 부류의 사람에 대해 말했다.

자신을 위해서도 남의 이익을 위해서도 도를 닦지 않는 사람, 남의 이익을 위해서 도를 닦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도를 닦지 않는 사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도를 닦지만 남의 이익을 위해서는 도를 닦지 않는 사람, 자신의 이익과 남의 이익 둘

다를 위해서 도를 닦는 사람이다.

…… 비구들이여, 이 가운데 자신의 이익과 남의 이익 둘 다를 위해서 도를 닦는 사람은 네 사람 가운데 으뜸이고 가장 뛰어나고 가장 훌륭하고 가장 높고 가장 탁월하다.³⁾

위 경전에서 ‘도를 닦는다’ 대신에 ‘노동한다’라고 대입하면, 노동의 사회적 의미가 명확해진다. 이른바 자신의 이익과 남의 이익을 위해 노동하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훌륭하다는 것이다.

인간은 수많은 사회적 노동의 은덕에 의존하여 살아가고 있다. 이를테면 한 채의 집을 지으려면 목재상, 목수, 미장이, 유리 가게, 석공, 전기공사, 기와공사, 하수도공사 등 엄청난 사람들의 협력이 필요하다.⁴⁾ 이와 같이 노동은 공동체 사회를 유지하는 원천이 된다.

결국 불교에서는 노동의 사회적 의무를 두 가지 측면에서 설하고 있다.

하나는 사회 질서의 유지 또는 공동체 사회 건설의 원동력으로서의 의미이고, 다

른 하나는 사회적 신분 또는 지위의 향상과 명예를 고양시키는 동인(動因)으로서의 의미이다.⁵⁾

(3) 노동의 종교적 의미

인간은 ‘생존의 욕구’ (survival needs)와 ‘초생존적 욕구’ (trans-survival needs)를 동시에 갖고 있다.⁶⁾ 인간은 동물처럼 본능적 욕구에만 만족하지 않고 보다 숭고한 종교적 이상을 실현하고자 한다. 그런데 이러한 종교적 이상은 땀 흘리는 노동의 현장에서 실현된다는 것이다.

불교의 궁극적 목표는 열반(涅槃)이다. 열반은 이 세상을 떠나 저 멀리 피안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이것을 현법열반(現法涅槃)이라고 한다.

불교에서는 무명(無明)과 갈애(渴愛)에 뿌리를 둔 ‘윤회의 삶’과 그것을 벗어난 ‘열반의 삶’을 구분한다. 두 가지 삶은 겉으로 드러난 양태는 동일할지 모르나 그 주관적 내면은 사뭇 다르다. ‘윤회의 삶’이나 ‘열반의 삶’이 노동을 필수조건으로

1) 전기호, 『신노동경제학』, p.26.

2) 한국철학사상연구회 편, 『삶, 사회 그리고 과학』(서울 : 동녘, 1994), pp.80-81.

3) AN II, p.95. 4) 大野信三, 『佛敎社會經濟學』, 박경준·이영근 옮김(서울 : 불교시대사, 1992), p.239.

5) 박경준, 『불교사회경제사상』, p.245.

6) Erich Fromm, The Revolution of Hope, (New York : Harper & Row, 1968), p.70; 박경준, 『불교사회경제사상』, p.246에서 재인용.



사의법(四依法 : 결식, 분소의, 수하좌, 진기약)에 의존하여 살아가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에 있어서는 출가자도 수행과 노동을 겸하지 않으면 생존하기 어려운 시대에 접어들었다.

그런데 출가자의 노동은 재화의 획득 그 자체가 노동의 동기가 될 수는 없다. 출가자의 궁극적 목표는 열반의 성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출가자의 노동은 출가공동체의 건전한 운영과 유지, 그리고 종교적 목표의 성취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의미만 갖게 된다. 한마디로 출가자의 노동은 그 자체가 곧 수행인 것이다.⁸⁾

이러한 정신은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一日不作 一日不食)⁹⁾는 「백장청규(百丈清規)」라든가 백용성(白龍城)의 ‘선농일치(禪農一致)’ 운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노동은 욕망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환멸문의 노동’인 것이다. ‘환멸문의 노동’은 근본적으로 ‘욕망의 질적 전환’에 바탕을 둔 노동이다. 따라서 ‘환멸문의

노동’은 더 이상 이기적 욕망을 좇지 않고 불교의 궁극적 이상인 열반을 지향한다. 그리하여 아무리 그 노동이 힘들고 괴로울 지라도 그것을 회피하지 않고 하나의 수행 과정으로 받아들인다. 또한 ‘환멸문의 노동’은 그 노동 및 노동의 결실을 모든 중생에 회향하고자 한다.¹⁰⁾

결국, 불교적 입장에서 본 노동의 종교적 의미는 노동이 ‘종교적 수행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기본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며, 노동 그 자체가 수행의 과정이며, 노동과 노동의 결과가 고통 받는 중생에게 회향한다는 의미로 정리될 수 있다.¹¹⁾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불교에서는 노동의 다양한 의미가 언급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경제적 의미, 사회적 의미, 종교적 의미 등이다. 경제적 의미란 재화의 획득 및 증식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노동의 의미이다. 사회적 의미란 노동이 개인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물론 공동체 사회를 유지시키는데 필수적임을 말한다.

이러한 의미들은 결국 노동이 단순한 노동력 상품으로서의 가치만이 아니라 인격적이고도 신성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본다.¹²⁾

따라서 이제는 노동에 대한 노동자들의 인식도 달라져야 할 것이다. 노동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점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 직업을 택할 때 임금을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되며 자기 적성에 맞고 하고 싶은 일을 기준으로 하여 선택해야 한다. 또한 자신이 하는 일이 힘들더라도 인간생활에 반드시 필요하고, 사회적으로도 유익한 것이라면, 긍지와 사명감을 갖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임해야 한다.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노동을 종교적 차원으로까지 끌어올려 ‘환멸문의 노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¹³⁾

7) 박경준, 『불교사회경제사상』, p.247.

8) 박경준, 『불교사회경제사상』, p.248.

9) 『百丈懷海禪師語錄』(『正續藏』 69, p.7b).

10) 박경준, 『불교사회경제사상』, pp.249-250.

11) 박경준, 『불교사회경제사상』, pp.249-250.

12) 박경준, 『불교사회경제사상』, p.254.

13) 박경준, 『불교사회경제사상』, pp.252-253.

백중과 영가천도의 공덕



음력 7월 15일(양력 8월 10일)은 우란분절이자 백중이다. 백중(百中)은 백중(百衆), 백종(百種), 망혼일(亡魂日), 중원(中元)이라 한다.

특히 불교에서는 이날을 우란분절(盂蘭盆節)이라고 한다. 우란분절은 부처님의 십대제자인 목련존자가 어머니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 우란분회(盂蘭盆會)를 열어 오미백과를 공양했다는 것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목련존자의 효성에서 비롯된 우란분절은 불교의 5대 명절 중 하나이다. 이날 각 가정에서는 부모님의 은혜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백가지 과일과 음식을 장만해 재(齋)를 올리고 사찰에서는 대중스님들을 공양하는 날이다.

백중날 제사를 지내게 된 연유는 다음과 같다.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인도 마갈타국에 장자 부부와 외아들 나복이 있었다. 나

복의 아버지는 주위 사람들로 부터 존경을 받았으나 그의 어머니는 반대로 탐욕이 많고 사악하였으므로 주위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었다.

나복은 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시자 멀리 장사를 위해 떠났다. 아들이 멀리 떠나자 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아들이 남겨준 재산으로 음탕하고 쾌락을 즐기는 등 타락한 일을 하는데 다 써버렸다. 몇 년 후 많은 돈을 벌고 고향에 돌아온 아들은 어머니의 타락한 생활을 알게 되고 큰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는 “내가 추잡하고 타락한 생활을 했다면 7일을 넘기지 못하고 아버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다” 하며 거짓말로 얼버무렸다.

그런데 정말 어머니가 7일 후에 죽어 지옥에 떨어지자 나복은 그만 인생무상을 느끼고 부처님께 귀의하였으니, 그가 곧 신통제일의 목련존자(目蓮尊者)이다. 목련존자가 열심히 수행을 하고 있던 어느 날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자기 부모님의 사후(死後)의 상황을 알아보니 아버지는 도리천에서 만날 수 있었으나, 어머니는 가장 고통이 심한 제일 밑의 지옥인 아버지옥(阿鼻地獄)에 계셨다. 그 모습이 너무 애통해 목련존자는 부처님께 어머니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달라고 울면서 애걸하였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우란분재(盂蘭盆齋)’를 베풀 것을 이르셨다. 이에 목련존자는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무려 1천2백여 명의 대중스님들을 모셔다가 경전을 읽고 목탁을 치며 우란분재를 올렸다. 이리하여 그 공덕으로 목련의 어머니는 지옥고에서 벗어나 화락천궁(和樂天宮)에 가게 되었고, 또 다른 지옥의 많은 중생들도 죄업이 감해지면서 천상으로 올라가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백중기도’의 기원이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백중을 맞이하여 49재를 올린다. 이는 조상의 명복을 빌고 살아생전에 지은 업(業)을 소멸하고, 부처님 세계에 다시 태어나길 바라는 마음에서 올리는 것이다. 또 백중에는 어머니 태중에서 이 세상을 마친 영가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이기도 하다. 백중은 그만큼 큰 공덕이 이루어지는 날이기 때문이다.

백중의 유래에 대해서는 몇 가지 설이 있다. 하나는 불가에서 유래된 것으로 조

선 후기에 간행된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불가의 중들이 재를 올리고 불공을 드리는 큰 명절로 여긴다. 『형초세시기(荊楚歲時記)』에 이르기를 ‘중원일(中元日)은 승니, 도사, 속인들이 모두 분(盆)을 만들어 이것을 절에 바친다’고 했다. 또 『우란분경(盂蘭盆經)』에 목련비구(木蓮比丘)가 오미백과(五味百果)를 갖추어 분 안에 넣어 갖고 시방대덕(十方大德)에 공양한다고 하였다. 지금 말한 백중일이 백과를 가리키는 것이다. 고려 때는 부처를 숭상하고 이날이 오면 항상 우란분회를 베풀었다. 오늘날 불당에서 재를 올리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날은 또 4월 15일부터 시작된 하안거를 해제하는 날이다. 석달의 수행기간 동안 자신의 허물을 참회하는 자자일(自恣日)로 의심이 있으면 스승께 물어 깨달음을 얻고 깨닫는 바가 있으면 대중에게 알리는 날이기 때문에 백중(百衆)이라고 한다.

또 백중날 각 가정에서는 익은 과일을 따서 사당에 천신을 올렸으며, 궁중에서는 종묘에 이른 벼를 베어 천신을 올리기도 하였다. 농가에서는 백중날 머슴들과 일꾼들에게 돈과 휴가를 주어 즐겁게 놀도록 하는 등 여러 가지 풍속도 전해오고 있다.

법왕사 소식

제27회 백고좌법회 회향기념 마가스님 초청 힐링콘서트 개최



마가스님 보현스님 상정스님

법왕사에서는 칠월칠석날인 8월 2일 밤 7시 '제27회 백고좌법회 회향 기념 칠석날밤 마가스님 초청 힐링콘서트'를 개최합니다.

마가스님은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힐링멘토'로 이번 콘서트에서는 결코 밝지만 많은 세상사에서 어떻게 마음의 휴식을 얻을 것인가를 알려줄 것입니다.

대구불교방송 박수경 아나운서로 진행되는 이날 힐링콘서트에서는 마가스님 이외에도 승려가수인 보현스님과 상정스님, 우담바라 합창단, 해오름 사물단이 출연해 한 여름의 무더위를 싹 날려줄 것으로 기대되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백중(우란분절) 영가천도 49재 봉행 중



갑오년 백중(우란분절) 맞이 영가천도 49재가 지난 6월 23일 입재하여 음력 7월 보름인 8월 10일에 회향합니다.

우란분절은 부처님의 제자인 목련존자가 지옥도에

떨어진 어머니를 천도하기 위해 자극정성으로 기도를 올리고 부처님과 스님들을 공양하여 어머니를 구했다는 유래가 있는 불교의 중요한 명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영가천도에 참여하는 불자들은 기도 기간 중 선망 부모와 조상 및 수자령가들을 천도, 극락왕생을 기원하며 사경책을 한 권씩 정성들여 베껴 회향일에 불사르는 의식을 올리게 됩니다.

불자들께서는 모두 수회동참하시어 선망부모의 왕생 극락을 기원하시고 크나큰 공덕 쌓으시기 바랍니다.

제27회 백고좌법회 봉행 중

지난 5월 13일 입재한 법왕사 제27회 백고좌법회가 불자들의 많은 동참 가운데 봉행 중에 있습니다. 법왕사에서는 올해 모두 세 차례의 백고좌법회를 봉행하는데 제26회 법회를 회향한데 이어 27회 백고좌법회가 열리고 있으며 28회 백고좌법회는 9월 13일부터 12월 21일까지 봉행합니다.

특히 이번 백고좌법회는 천일기도와 함께 진행되고 있어 갑오년 한해뿐만 아니라 3년 동안 여법하고 정성이 가득한 기도법회가 될 것입니다.

이번 법회 중간에도 불명 보살계 수지법회, 삼사순례법회, 방생법회를 비롯해 문화행사도 다양하게 열릴 예정이오니 불자 여러분들께서는 계속 많은 동참 바랍니다.

법왕불교대학 강좌 개강 중

법왕불교대학 강좌가 일제히 시작되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복지관 만불전에서는 영일스님의 근본불교 강좌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에는 주지스님의 기초교리 강좌가, 목요일 저녁 7시에는 주지스님의 지장경 강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법왕사 소식

법왕사 청동 대범종 불사 모연 중



법왕사에서는 여법한 도량 조성을 위해 범종 불사를 봉행합니다. 도량 입구에 2층 범종루를 세우고 거기에 대범종을 비롯해 사물을 다 봉안할 계획입니다. 범종 불사에 시주한 분은 이름을 새겨 대대손손 이어지도록 할 것이며 불생불멸의 종소리는 삼천대천 세계까지 울려 퍼져 무간지옥의 구석구석까지 밝혀 삼악도를 여의고 이고득락하게 할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께서는 이에 동참하시어 그 인연공덕으로 영겁토록 무량한 복덕을 누리시기 바라며 이웃에도 권선하시기를 합장, 기원합니다.

복지관 4층 대적광전 상들리에·불구 모연 중



법왕사 종합복지관 4층 대적광전 조성 불사회향을 앞두고 삼존불을 장엄할 천장의 상들리에와 촛대, 향로 등 불구를 보시받고 있습니다. 법왕사 대적광전은 천정 높이 9m에 이르는 장대한 법당으로 비로자나불, 노사나불, 석가모니불 등 삼존불을 봉안합니다. 도량과 법당, 불상의 위엄에 걸맞는 장엄물을 보시받고 있사오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 법왕사 문화 강좌 개설 -

- | | | |
|------|------------------|--------------|
| 다 | 도 :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 강사 : 김정규 선생님 |
| 사찰요리 | : 개강 예정 | |
| 사물놀이 |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 강사 : 이정화 선생님 |
| 서 | 각 :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 강사 : 신임선 선생님 |
| 꽃 | 꽃 이 : 승혜스님(비구니) | |

해오름 소식

노래공연프로그램



노래공연 프로그램을 위해 자원봉사자님께서 방문 해주셨습니다. 수많은 옛 명곡들을 기타 하나로 멋지게 연주하며 노래를 부르시는 모습에 모두 다 더위도 잊은 채 감성에 젖어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써포터즈 차량지원 봉사단



써포터즈 차량지원 봉사단과 함께 대구 팔공산 인근에 위치한 방짜유기박물관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어르신들과 함께 역사공부도 하고, 재가차기와 윷놀이 등의 전통놀이도 즐겼으며 무엇보다도 맛있는 순두부찌개가 일품이었다고 어르신들께서 입을 모으셨습니다.^^

참사랑문화봉사단



6월 30일 참사랑문화봉사단분들의 공연이 있었습니다. 어르신, 요양보호사 선생님 할 것 없이 모두가 같이 덩실덩실 춤추고 노래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 개인 정기봉사자 |

김명희(놀이치료), 최은선(미술치료)

| 단체 정기봉사자 |

참사랑문화봉사단, 써포터즈봉사단, 이·미용봉사단

| 학생 정기봉사자 |

장임영, 이가영, 김지현, 최준혁, 김명지

놀이프로그램



해오름요양원 어르신들을 위해 늘 수고해주시는 김명희 자원봉사자님! 어느덧 자원봉사를 오신 지 1년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즐거운 프로그램이 끝난 후 깜짝 파티로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응급처치교육



(주)에이스 주최 응급처치교육이 실시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르신들의 음식물로 인한 기도막힘 상황시 대처법과 갑작스런 심장마비 혹은 호흡곤란 상황시 대처법에 대해 이론적인 설명과 더불어 인형을 통한 실습시간도 가졌습니다. 모든 선생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한 결과 뜻깊고 기억에 남는 교육시간이 되었습니다.

미술치료프로그램



어르신들의 집중도가 가장 높은 미술치료프로그램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도화지 위에 갖가지 색종이로 알록달록 이쁘게 꾸미시는 도중 "이쁘다 이쁘다"를 연발하시는 어르신들 모습을 보며 지켜보는 모두가 행복해 지는 시간이었습니다.

해오름 게시판

2014 AUGUST Vol. 243호

후원금 수입 및 지출내역(6월)

◎ 수입내역

CMS(자동이체) 후원하신 분

신충호 5천원	박병준 1만원	구정대 2만원
정운현 5천원	석종순 1만원	황상옥 2만원
김순태 1만원	김은주 1만원	최윤희 5천원
최은순 1만원	김민주 1만원	김무용 5천원
이정화 1만원	김경호 1만원	신진무 1만원
김영랑 5천원	이현기 1만원	백옥수 5천원
정민주 5천원	박재후 1만원	김상철 5천원
진봉희 1만원	권기철 1만원	허유미 5천원
김순연 5천원	김주희 2만원	신진숙 1만원
황지영 5천원	정민주 5천원	신임선 5천원
이은경 1만원	장호주 5천원	황학영 1만원
박정국 1만원	장성용 1만원	남기웅 1만원
신수희 1만원	이호동 5천원	정대영 1만원
강유미 1만원	김미정 1만원	손말두 5천원
이정희 5천원	박성숙 5천원	최경순 1만원
정선옥 5천원	김경환 1만원	정옥수 5천원
성외련 2만원	박치민 5천원	임승현 1만원
고연숙 1만원	이전희 5천원	권영희 1만원
김진현 5천원	정철수 3만원	김우영 1만원
박귀분 1만원	박동규 5천원	임상덕 1만원
김원형 3만원	신진숙 1만원	김임태 5천원
성승길 1만원	박순영 5천원	이상환 5천원
정시영 1만원	김형택 2만원	임익균 1만원
반룡사 1만원	권보형 2만원	정경석 2만원
곽순복 2만원	정경숙 1만원	홍새미 1만원
김영일 1만원	강선옥 1만원	전행연 1만원
조규인 1만원	정옥선 1만원	김진성 1만원
장호식 2만원	사공관 1만원	홍유식 5천원
심종순 5천원	신세호 1만원	이점례 1만원
윤광숙 5천원	한규매 5천원	이용옥 1만원
채옥연 5천원	김예분 1만원	정연이 5천원
김외환 1만원	배수현 2만원	오금옥 1만원
이인순 5천원	박순남 5천원	신돈식 1만원
박대희 5천원	김봉숙 5천원	박용관 1만원
여택동 5천원	이남희 1만원	오난옥 5천원
김영희 5천원	이종희 5천원	안상준 2만원
이병희 1만원	김무용 5천원	안경순 1만원
강소남 5천원	김순란 3만원	신화식 1만원
권오성 1만원	김정희 1만원	신구자 5천원
민주현 1만원	강심규 5천원	박원태 1만5천원

조영석 1만원	조창신 1만원	박태숙 5천원
김유진 1만원	박학순 1만원	황준원 1만원
문정애 2만원	유명옥 1만원	윤순희 1만원
최창숙 5천원	노귀자 5천원	김기덕 2만원
김유진 1만원	주성순 1만원	이정옥 1만원
김유리 1만원	김수라 1만원	조정자 5천원
정무시 1만원	최경미 1만원	최분규 1만원
장성규 5천원	김정임 1만원	권오국 1만원
양니영 5천원	김미자 1만원	권숙자 1만원
김진희 1만원	신혜경 1만원	도화순 5천원
이임숙 2만원	임예숙 1만원	안명희 1만원
장재혁 5천원	현영희 1만원	윤정연 1만원
황미선 2만원	양봉훈 1만원	강영도 2만원
금강사 2만원	현인숙 1만원	이재봉 5천원
이정훈 1만원	서규하 2만원	노수정 1만원
김정규 5천원	심규암 5천원	장호식 8만원
권계화 1만원	엄세비 1만원	김정자 5천원
김대현 5천원	장우성 2만원	한희록 1만원
김기수 2만원	권명진 1만원	김정순 3만원
우포정사 1만원	시명스님 5천원	용미관음사 3만원

무등장으로 후원하신 분

강미경 5천원 이은희 5천원 이강복 1만원

지로용지(무기명)으로 후원하신 분

무기명 4만원

합계 1,940,000원

◎ 지출내역

- CMS자동이체 수수료	66,000원
- 문자통지 수수료	2,000원
- 부식재료구입	71,130원
- 의료비	8,000원
- 요양원 필요물품구입	156,600원
- 우편배송비	8,890원

6월 총 사용내역 312,620원

※ 해오름요양원을 위해서 후원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매월 사보를 통해서 수입, 지출내역을 상세히 기록할 것이며 남은 금액도 어르신들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

※ 해오름요양원에서는 후원자님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CMS자동이체신청을 개설했습니다. 법원사 및 해오름요양원에 오시면 신청서가 구비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나누는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후원물품 보내신 분

한울식 **어르신 보호자** : 요구르트 90개
 장석순 **어르신 보호자** : 수박 2통
 유세묘 **어르신 보호자** : 수박 1통
 권순득 **보살** : 기저귀 10개
 이점례 **보살** : 롤케익 2개
 진병호 **어르신 보호자**
 : 미에로화이바 20개, 박카스 20개
 권영를 **어르신 보호자** : 수박 1통
 무기명 : 수박 2통
 남분한 **어르신 보호자** : 수박 1통
 채분이 **어르신 보호자** : 수박 1통, 족발 1box, 닭 2마리
 백복순 **어르신 보호자** : 수박 1통
 김명희 **자원봉사자** : 콩 1말
 정잠분 **어르신 보호자**
 : 초코파이 6box, 요구르트 30개
 서윤수 **어르신 보호자**
 : 우유 50개, 요구르트 50개, 요플레 52개
 박수연 **어르신 보호자** : 닭 2마리
 차수학 **어르신 보호자** : 수박 1통
 신장희 : 참기름 3만원 상당
 김순란 : 과일 2만원 상당
 장어와미꾸라지 : 추어탕 40인분
 김민지 **보살** : 고기 5만원 상당

7월 신규 후원자 명단

채수인	조인성	한유자	전영희
이정순	최영희	정명선	함민주
박종규	김명옥	박성림	이경란

직원동정

개원부터 지금까지 해오름요양원의 원장으로 재직하시던 자운스님께서 개인사정으로 퇴사하시어 강선옥 사무국장을 7월 21일자로 원장 인사발령 하였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신 자운스님께 큰 감사드립니다.

자원봉사자 모집

- ◎ 활동일시
- 매주 1~2회 14~15시(시간, 요일 조절 가능)
- ◎ 활동분야
- 미술활동, 음악활동, 종이조형, 아로마요법, 생

활체육, 요가, 민요, 원예, 다도, 놀이활동 등

- ◎ 신청방법
- T.053-766-5767 담당 사무국장 강선옥
- 방문접수 법왕사 1층 사무실(수성구 파동로 51길 96)

요양원 입소 안내

- ◎ 입소대상 :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 요양 등급 1~3등급 (시설급여) 판정을 받은 어르신
- ◎ 입소시 준비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1부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 건강진단서 1부
- ◎ 이용료
- 기초생활수급자 전액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저소득층) / 국가유공자 본인부담금 10%
- 비급여항목(식대, 간식비) 별도 부담
- ◎ 문의 전화 053)766-5767
팩스 053)766-5095

후원안내

금품후원 대구은행 505-10-119877-1
 예금주 해오름요양원
 물품후원 기저귀, 의약품, 세제류, 의복, 주·부식류, 생활용품 등
 CMS자동이체 후원
 법왕사 및 해오름요양원에 방문하셔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1구좌 5,000원부터)

복지관 4층 대적광전 상들리에 · 불구 보시 모연문

법왕사 종합복지관 4층 대적광전 조성 불사회향을 앞두고 삼존불을 장엄할 천장의 상들리에와 촛대, 향로 등 불구를 보시받고 있습니다. 법왕사 대적광전은 천정 높이 9m에 이르는 장대한 법당으로 비로자나불, 노사나불, 석가모니불 등 삼존불을 봉안합니다. 도량과 법당, 불상의 위엄에 걸맞는 장엄물을 보시받고 있사오니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 법당용 6봉 연등, 법당 연밥등, 향로 촛대 세트

불사하신 분

오난옥 김기수 정현균 이승재 양영갑 양혜진
 양봉률 양봉훈 양혜영 양지영



해오름요양원이 확장되었습니다!

〈1층 19명 추가 허가받음〉

“해오름요양원이 기존 25인 시설에서 44인 시설로 확장되었습니다.
 한 달 여 공사 끝에 어르신을 모실 수 있는 아늑한 공간으로 달라졌습니다.”

어르신을 모시면서 힘드신 일은 없으신지요?
 효를 실천하면서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눠지겠습니다. 부모가 어린자식을 정성으로 돌봐줬듯 늙어가는 부모님을 자식과 같은 마음으로 돌봐드립니다. 남은 여생을 보낼 공간 무엇보다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해오름은 내 집 같은 편안한 안식처를 제공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또 다른 가족이 되겠습니다.



화엄신중 천일기도 봉행

법왕사에서는 2014년 갑오년을 맞이하여 천일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5일(음력 12월 15일) 입재하여 2016년 10월 10일(음력 9월 10일) 회향하는 이번 천일기도는 기도를 통해 소원을 성취하는 대기도법회로 1천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를 올립니다.

◎ 천일기도의 발원문

지혜와 자비의 근원이신 부처님 감사합니다.

모든 중생과 더불어 공덕 나누며 지혜와 용기와 원만성취를 함께 하겠나이다. 촛불을 켜고 바른 자세로 앉아있는 의식적인 행동의 중요함보다는 두 손 합창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바라보며 고백하고 시인하는 이 마음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부처님의 자비하신 공덕으로 벗겨지고 씻겨진 참 모습을 원하오니 태우시고 씻기시어 육신이 거하는 또 다른 내가 지워지고 벗겨져 멀하게 하여 주옵소서.

향하사 미래와 같은 중생들이 팔만사천 부처님 법문 속에 몸과 정신을 맡기고 의지하여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기억하시고 불러주셔서 제 마음밭을 고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부처님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부처님의 인도함 받기를 원하오니 이 기도방을 통해 안정된 마음으로 삶이 변화되는 과정을 돕게 하소서. 자비의 손길과 빛으로 그 마음을 쏘이시고 지극한 법향으로 지난 과오의 업을 지워 주소서. 신심으로 이 기도에 동참하게 하시고 동참하신 모든 이웃에게 부처님의 자비하신 은공이 들게 하시고 운행하는 행로 행로마다 부처님 함께 하시어 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느 곳에서도 우리가 부처님의 제자답게 본이 되는 방정한 자세 갖추게 하시고 진정한 빛과 법향을 풍기는 참된 불자로 거듭나게 하소서.

여기, 백고좌 법회도량 법왕사 불자들이 천일기도의 념을 세웠습니다. 기도동참 불자들의 심중 소구 소원이 자비하신 부처님의 가피지 묘력으로 원만성취될 수 있기를 합장발원 올립니다.



천일기도 안내

- 입 재 : 2014년 1월 15일 수요일 (음 12월 15일)
- 회 향 : 2016년 10월 10일 월요일 (음 9월 10일)
- 천일법회 : 합동재일은 매월 초하루, 보름 오후 2시 본당 2층에서 약찬게 49독 후 축원
- 천일염주 : 천일법회시 천주를 제작할 30알의 염주와 염주 주머니를 드립니다.
- 기도비 : 입재시 10만원, 매월 초하루 3만원(30개월)
- 초하루, 보름 특별축원 오후 2시부터 2시간 30분간 주지스님 집전(대중스님 전체 동참)
- 10차 기도시 합동천도재 봉행, 영가 1위당 10만원

※ 1000일기도 회향 때까지 천주를 완성하신 불자님께서는 1000일기도 회향 기념 수계를 드립니다.
※ 입재시 100알의 염주와 1000주 염주를 만들 염주 줄을 드립니다.



신행단체 모임안내

- | | |
|--|------------------------|
| 신 장 회 매월(음) 10일 오전 10시 | 인 등 회 매월(음) 15일 오전 10시 |
| 산신기도회 매월(음) 16일 오후 4시 | 지 장 회 매월(음) 18일 오전 10시 |
| 관 음 회 매월(음) 24일 오전 10시 | 합 창 단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
| 천일기도회 매월(음) 초하루, 보름 오후 2시~4시까지 주지스님 집전 | |